



새로운 조경수(Ⅳ X Ⅵ)

- 황매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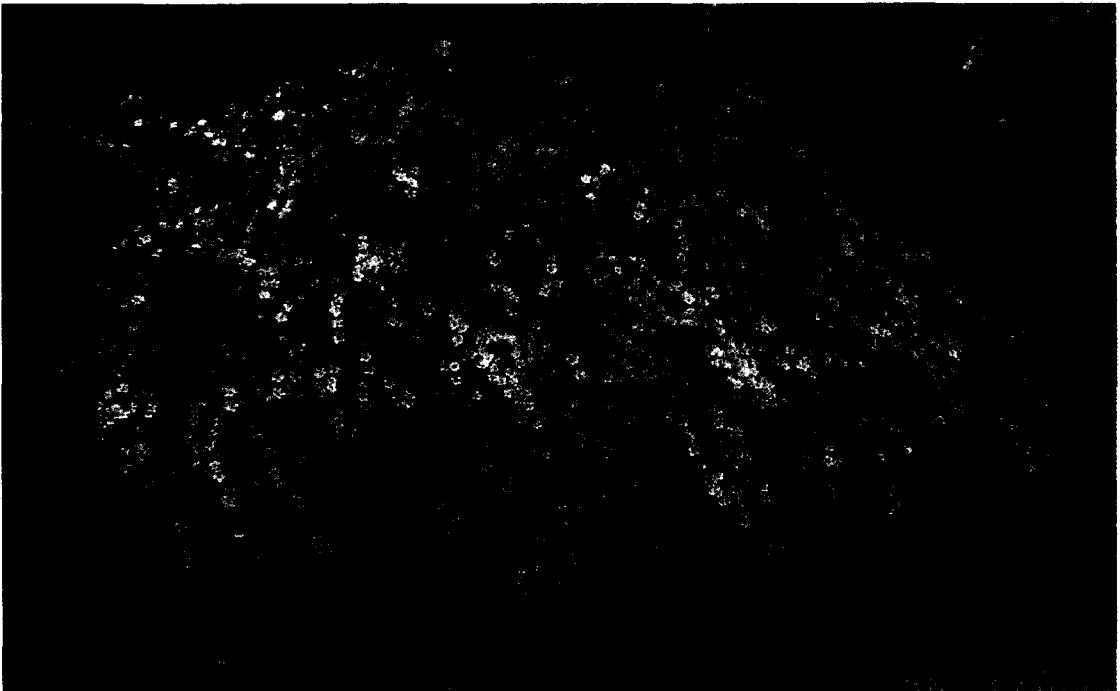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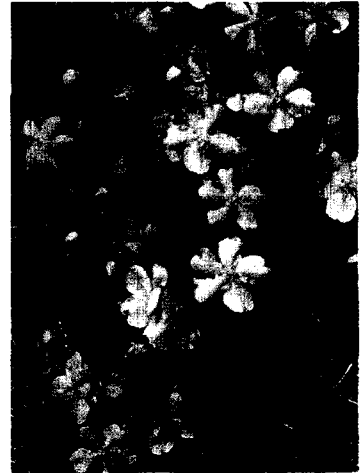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 종류와 생육특성

황매화속(Kerria)에는 세계적으로 황매화 단 한 종밖에 없고 중국과 일본이 원산지로서 보

고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 언제 도입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도입된 지가 오래되어 귀화식물화(歸化植物化)하여 전국에 분포, 생육하고 있다. 특히 계룡산 갑사(甲寺)입구의 수림하(樹林下)에 집단적으로 대면적에 생육하고 있으며 꽃이 피었을 때는 장관(壯觀)이다. 그리고 황매화의 한 품종으로 꽃이 겹꽃인 죽도화(일명:죽단화라고도 함)가 있으나 언제 어땡



황매화의 꽃과 잎(사진 위), 황매화 개화전경(사진 아래)

개 누구에 의하여 작출(作出)되었는지 보고된바가 없다.

황매화는 내음력(耐陰力)이 강하여 양지·음지구별없이 잘 자라고 내한력(耐寒力), 내공해력(耐公害力)도 강한 편이지만 내염력(耐鹽力)이 약하기 때문에 해풍(海風)이 잘 달는 바다

가까운 해변에서는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 생육에 적합한 토양은 토양습도가 높고 비옥한 사질양토가 좋다.

○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황매화와 죽도화는 덩불형 관목으로 개화기간이 길고 진

노란 꽃이 덩불전체를 덮고 있는 광경은 대단히 아름답기 때문에 옛날부터 조경수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양지·음지구별 없이 잘 자라므로 사찰, 학교, 공장, 아파트단지, 공장 등의 각종 정원과 공원, 도로, 철도, 하천변 등의 화목, 지피 식생, 생울타리조성등 활용 범위가 대단히 넓은 수종이다. 그리고 단목(單木)으로 식재하여도 좋지만 생육특성상 집단(集團)으로 식재하는 것이 더 좋은 경관을 창출(創出)할 수 있다.

○ 번식 및 양묘방법

번식은 실생(實生), 삽목, 분주에 의하여 번식할 수 있지만



죽도화의 꽃과 잎(사진위), 죽도화 개화전경(사진아래)

죽도화는 종자가 열지 않기 때문에 실생묘 양성은 불가능하다. 황매화의 실생묘 양성은 10월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과피를 제거한 후 바로 파종을 하든가 저온저장 또는 노천매장(露天埋藏)을 하였다가 다음해 봄에(3월 하순~4월 상순) 파종을 하면 된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종자채취후 파종할 때까지 종자가 건조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며 m²당 파종량은 66g(160cc), 파종방법은 산파(散播) 또는 조파(條播)가 있고, 복토(覆土)의 두께는 5~10mm로 하고 파종후 상토(床土)가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관리를 잘하면 m²당 600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 1년생 묘목의 키는 5~20cm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대개 1년간 거치(据置)를 하였다가 3년째 봄에 m²당 30~40본 정도로 이식한다.

삼목은 봄에 하여도 잘되고 여름에 녹지(綠枝)삼목을 하여도 잘된다. 봄에 삼목을 할 때는 가지에 새싹이 트기 전에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채취하여 삼목을 하고 여름(6월하순~7월상순)에 삼목을 할 때는 당년에 자란 가지(녹지)를 채취하여 삼목하며 삼수의 길이는 10cm정도가 되게 잘라 삼수

의 1/2정도가 묻히게 안내봉(案内棒)으로 구멍을 뚫어 삼목을 한다. 여름에 녹지삼목을 할 때는 삼수의 1/2정도 있을 따지 말고 남겨두어야하고 m²당 삼목본수는 200본 정도가 적당하다. 삼목후에는 해 가림을 설치하여 상토(床土)의 건조를 방지하여 주면 활착율이 높고 이식은 다음해 봄 m²당 30~40본 정도로 이식한다. 그리고 분주는 봄에 기존목(既存木)의 주위를 파서 한 포기(株)의 줄기가 3~5개가 되게 떼어내어 바로 조경용으로 사용해도 좋고 일년간 묘포에 이식하여 묘목으로 양성해도 좋다.

<표1> 황매화의 종류

국명	학명	일본명	영명
황매화	Kerria japonica DC.	ヤマブキ	Kerria(Kerry bush)
죽도화	Kerria japonica for. plena SCHN.(EID)	ヤエヤマブキ	

<표2> 수종별 특성

수종별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황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2m까지 자라는 덩불형 낙엽활엽수 관목임 · 줄기가 지제부에서부터 총생(叢生)함 · 가지와 줄기는 항상 녹색임 · 잎은 호생하고 긴 타원형 또는 난형 · 잎의 길이 3~4cm, 나비 2~3cm · 잎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점첨두(漸尖頭), 원저(圓低)임 · 잎표면의 엽맥은 오목하게 들어가고 뒷면의 엽맥은 튀어나옴 · 잎뒷면의 엽맥에 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홑꽃으로 4~5월에 노랗게 피 · 꽃은 겉가지 끝마다 한 개씩 피 · 꽃의 지름은 3~4cm · 꽃잎은 5장이고 수술이 많으며 수술과 암술의 길이는 비슷함 · 열매는 한 개의 꼭지에 보통 5개가 달리지 만 1~4개가 달리는 때도 있음 · 열매는 8~9월에 흑갈색으로 익음 · 열매의 크기는 5~8mm 정도임 · 열매의 모양은 편구상(扁球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중국, 일본 · 우리나라 분포지역: 중부이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습, 비옥한 사질토양
죽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과 가지의 모든 특징은 황매화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매화와 차이점은 꽃이 겹꽃이고 열매가 달리지 않음 		